

안데르센 (1805 ~ 1875)

안데르센은 1805년 4월 2일 덴마크 퓨네 섬의 작은 어촌 마을인 옌센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는 가난한 구두 수선공이었으나 책 읽기를 좋아하는 진보적인 생각의 소유자로 어린 안데르센이 문학적 재능을 키우는 데 큰 영향을 주었다.

안데르센은 대학시절부터 시를 쓰기 시작하였고 1833년 이탈리아 여행의 체험을 바탕으로 쓴 <즉흥 시인>이 호평을 받으면서 본격적인 작가의 길을 걷게 된다. 같은 해에 내놓은 최초의 동화집은 동화작가로서의 출발점이 되었으며, 그 이후 동화 창작은 1870년경까지 계속되어 모두 130편이 넘는 동화를 지었다. 안데르센은 <인어공주>, <미운 오리새끼>, <별거벗은 임금님> 등 아동문학의 최고봉으로 손꼽히는 수많은 걸작 동화들을 남겼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갖은 고생 끝에 작가로서 성공을 거둔 그의 작품 속에는 서정적인 문체와 아름다운 환상의 세계, 파스한 휴머니즘이 맑고 포근하게 녹아 있다. 평생 독신으로 지낸 안데르센은 1875년 쓸쓸하게 세상을 떠났다. 그의 장례식 날에는 덴마크의 전 국민이 상복을 입었으며 국왕과 왕비도 장례식에 참석하였다. 그는 시인으로서도 많은 활동을 했으며 그의 아름다운 동화들은 전 세계에서 사랑받고 있다.

「하늘을 나는 가방」

한 젊은이가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을 탕진하고, 친구들에게도 버림받는다. 그에게 남겨진 것은 빈 여행 가방 하나. 그런데 놀랍게도 그것은 하늘을 나는 요술 가방이다. 늘 다른 나라에 가보기를 소원하던 젊은이는 터키로 향하고, 그곳에서 성의 높은 탑에서 홀로 지내는 공주를 보고 첫눈에 사랑에 빠지게 된다.

<하늘을 나는 가방>은 안데르센의 1839년 작품으로, 어린 시절 안데르센이 즐겨 읽었

던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날아다니는 융단에서 모티브를 얻었다고 한다.

「어머니 이야기」

가난한 어머니가 아픈 아이를 돌보고 있다. 아이는 너무 아파서 소리도 못 내고, 어머니는 어찌할 바를 몰라 눈물만 흘린다. 어느날 저승사자가 찾아와 어머니가 잠든 사이에 아이를 데려가 버린다. 어머니는 아이를 되찾기 위해서 길을 떠나는데...

<어머니 이야기>는 안데르센이 1847년에 발표한 슬프고도 철학적인 동화이다. 이 작품은 애니메이션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했다.

하늘을 나는 가방

[제1장] 부유한 젊은이

p. 12-13 옛날에 현명하고 부유한 남자가 있었다. 그는 돈이 많았다. 그는 은행에 그의 돈을 안전하게 두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죽었다. 그 남자의 아들이 그의 재산을 물려받았다. 아들은 돈을 쓰는 것을 정말 좋아했다. 그는 매일 돈을 썼다. 그는 큰 파티를 했다. 심지어 연을 만드는 데 돈을 사용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그것들이 날아가는 것을 보곤 했다.

p. 14-15 곧 젊은이는 더 이상 돈이 없었다. 그는 장난감과 노는 데 돈을 다 썼던 것이다. 그가 돈이 없었기 때문에 친구들도 그를 떠났다. 그들은 진정한 친구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단지 돈 때문에 그를 좋아했던 것이다. 친구들 중 하나가 그에게 큰 가방 한 개를 주었다. 가방에는 메모가 있었다. 거기에는 '옷을 싸서 나가!'라고 쓰여 있었다. 가방은 옷을 위한 것이었지만 그 남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음식을 구하기 위해 옷을 팔아야 했다. 그는 매우 슬퍼하며 가방에 앉았다.

p. 16-17 남자는 생각했다. "이 가방 안에 나를 쌀 수 있으면 좋겠어. 그러면, 난 날아갈 텐데." 그는 손으로 가방을 쳤다. 그러자 가방이 공중으로 떠올랐다! 그 가방이 마법의 가방이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날 수 있었다! 남자는 무시했다. 그는 비명을 질렀다. "아아아!" 하지만 그는 곧 행복해졌다. "나는 하늘을 나는 마법의 가방이 있다." 그는 소리쳤다. 남자는 항상 다른 나라를 가보고 싶었다. 그래서 그는 지도를 보았다. "난 눈을 감을 거야. 그리고 나서, 지도를 가리킬 거야." 그가 말했다. "내 손가락이 어디로 갈지 나에게 알려 줄 거야."

p. 18-19 그의 손가락은 터키라는 나라에 내려앉았다. 그래서 그 젊은이는 터키로 갔다. 얼마 후에 그는 터키에 도착했다. 그는 멀리 큰 성을 볼 수 있었다. "성에 가 보겠어." 그가 말했다. "하지만 먼저 난 배가 고파. 누군가에게 먹을 것을 부탁해야겠다." 그는 숲 속에 가방을 내렸다. 그는 그것을 나뭇잎으로 덮었다. 아무도 그것을 볼 수 없었다. 곧, 그는 농부 가족이 사는 작은 집을 발견했다. 그 친절한 가족은 그를 자신들의 집으로 점심식사에 초대했다.

p. 20-21 "저 큰 황금빛 성에는 누가 사나요?" 그가 물었다. "국왕님의 딸, 공수님이요." 농부의 딸이 대답했다. 그녀는 그에게 햄과 사과를 좀 주었다. "하지만 그녀는 매우 슬퍼요. 한 점쟁이가 그녀에게 나쁜 말을 했거든요." 농부의 아내가 말했다. "그녀는 사랑에 빠질 거예요. 하지만 그녀의 연인이 사라질 거라는군요." 농부의 아들이 덧붙였다. "이런 이유 때문에, 아무도 그녀를 찾아가 볼 수 없어요. 그녀의 부모님만이 그녀를 볼 수 있어요." 농부가 말을 마무리지었다. 젊은이는 매우 궁금했다. 그는 그녀를 찾아가고 싶었다. 젊은이는 가방에 탔다. 그는 성의 꼭대기로 날아갔다.

[제 2 장] 천사와 공주

p. 24-25 성은 황금빛으로 빛났다. 그것은 매우 컸다. 그리고 그것은 매우 높은 탑을 가지고 있었다. 그 탑은 비어 있었다. 그 안에는 사람이 없었다. 더 가까이 가자, 그는 아름다운 아가씨를 보았다. 그녀는 탑의 꼭대기 방에 있었다. 그녀는 외톨이였고 울고 있었다. 그는 분수 뒤에 하늘을 나는 가방을 내렸다. 그리고 나서 그는 조용히 그녀에게 올라갔다. 그가 그녀를 봤을 때 그의 심장은 녹아버렸다. 그는 사랑에 빠졌다.

p. 26-27 “누구세요?” 공주가 물었다. 그녀는 그를 보고 매우 놀랐다. 젊은이가 말했다. “나는 터키 천사예요. 난 천국에서 당신을 봤어요. 그리고 당신과 사랑에 빠졌지요.” 그들은 앉아서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제 공주도 사랑에 빠졌다. “난 당신과 결혼하고 싶어요. 당신을 영원히 사랑할 거예요.” 젊은이가 말했다. 공주는 그를 사랑했지만 문제가 있었다. 그녀의 부모님이 그를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우선, 당신은 제 부모님을 만나야 해요. 당신은 부모님에게 이야기를 해드려야 해요.”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그것은 특별한 이야기여야 해요. 만약 부모님이 그 이야기를 좋아한다면 우리는 함께 있을 수 있어요.”

p. 28-29 그녀의 어머니는 깊은 의미가 있는 이야기를 좋아했다. 그녀의 아버지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좋아했다. “당신의 이야기는 재미있지만 깊은 의미가 있어야 해요.” 그녀가 말했다. “할게요.” 터키 천사가 말했다. “내일이면 이야기를 생각해볼 거예요. 당신 어머니와 아버지가 좋아하실 거예요.” “하지만,” 그는 덧붙였다. “천국에서는 돈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난 좋은 옷을 살 수 있는 어떤 것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공주는 자신의 목걸이를 뺐다. 그것은 여러 색깔의 보석이 달린 금으로 되어 있었다. “이것을 팔아서 옷을 사세요. 목걸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당신은 내 천사니까요.” 그녀가 말했다.

p. 30-31 그래서 젊은이는 가방이 있는 곳으로 갔다. 조용히 그는 날아갔다. 그는 숲 속에 있는 멀리 떨어진 곳으로 날아갔다. 그는 이야기를 생각해내야 했다. 이것은 젊은이에게 쉬운 일이었다. 그는 돈 관리는 정말 못했지만 똑똑했다. 그는 큰 나무 옆에 앉아서 생각했다. “흠... 너는 큰 소나무구나.” 그가 말했다. “많은 동물들과 새들이 너를 좋아해. 아이들은 너의 그늘에서 놀려고 찾아오지.” 아마도 이런 사실이 너를 자랑스럽고 강하게 느끼게 해줄 거야. 하지만 하나의 작은 불꽃이나 불길이면... 아하!” 젊은이는 미소지었다. 그는 이야기를 완성했다.

p. 32-33 그 다음날, 그는 마을로 갔다. 먼저 그는 보석상에 갔다. 그는 금 목걸이를 팔았다. 그리고 나서 그는 양복점에 갔다. 그는 아름다운 옷 한 벌을 샀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발소에 갔다. 그는 신뜻하게 머리를 잘랐다. 그는 준비가 되었다. 공주와 그녀의 부모님은 터키 천사를 만났다. 그들은 모두 불 옆에 앉았다. 그리고 나서 젊은이는 이야기를 했다. 그 이야기는 이와 같았다...

[제 3 장] 이야기

p. 36-37 “옛날 옛적에 성냥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가족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겼습니

다. 그들은 나뭇가지로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은 가장 큰 소나무에서 나온 것이었지요. 그것은 숲속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였습니다. 그 나무는 새들을 위한 보금자리였습니다. 그것은 마을에 그늘을 만들어 주었어요. 아이들은 그 나무 주위에서 놀곤 했습니다. 매일 성냥들은 그 나무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다른 부엌용품들은 이 이야기를 듣는 것에 싫증이 났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에 대해 이야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p. 38-39 철 냄비가 시작했습니다. “나는 철판 만들어졌어. 내가 하는 거라곤 일뿐이야. 가족은 매일 음식을 요리하는 데 나를 사용하지, 그리고 난 매일 불 위에서 달구어져, 그리고 나면 차가운 선반에 놓여지지.” 그 다음에 말한 것은 빗자루였다. “나는 매일 쓸어.” 그것이 말했습니다. “나는 항상 먼지로 가득해, 그리고 난 항상 서 있어야 해. 나는 절대 앉을 수 없어.” 그 다음에 말한 것은 접시들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루 종일 일해. 우리는 음식을 담고 있지만 그것을 절대 먹을 순 없어. 우리는 일을 많이 하지만 항상 배가 고파.”

p. 40-41 성냥들은 매우 자랑스러웠습니다. “우리가 부엌에서 최고야.” 그들이 말했죠. “다른 물건들은 아무 대가도 못 받고 일만 많이 해. 그리고 그들은 매우 더러워지지.” 한 성냥이 웃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운이 좋아! 우리는 깨끗해. 우리는 일을 하지 않아.” 그들은 말했죠. 바로 그때, 요리사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성냥들은 미소지었습니다. 그들은 말했죠. “물론 우리가 선택될 거야. 우리는 최고니까!” 요리사는 화로에 불을 붙이기 위해 그들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들은 몇 초 동안 매우 밝게 뒹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의 불이 꺼졌습니다. 그들은 쓰레기 통에 버려졌지요.”

p. 42-43 왕과 왕비는 매우 기뻐했다. 이야기는 아주 훌륭했다. “정말 재미있구나! 부엌용품들이 말을 하다니!” 왕이 말했다. “정말 깊고 중요한 메시지로구나.” 왕비가 말했다. “그래! 우리 딸과 결혼해도 좋다.” 왕과 왕비 둘 다 말했다. 결혼식을 그 다음 날로 하자는 데 모두가 동의했다. “우리는 여기 위에서 결혼식을 할 것입니다.”라고 청년이 말했다. “탑 꼭대기 말입니다. 새들이 우리의 하객이 될 것입니다. 태양이 우리의 빛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구름이 우리의 천장이 될 것입니다.” 모두 아주 행복했다.

p. 44-45 젊은이는 마법가방이 있는 곳으로 돌아왔다. 그는 조용히 날아갔다. 그는 매우 기뻐했다. 그는 폭죽을 좀 사기로 결심했다. 그는 하늘에 폭죽을 밝히고 싶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마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것이었다. 폭죽은 매우 밝았다. 그것들은 아름다운 별과 같았다. 젊은이는 사람들이 말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들은 많은 좋은 말들을 했다. “오직 천사만이 무언가를 아름답게 만들 수 있을 거야.” 젊은이는 매우 자랑스러웠다. 그는 날아다니는 가방을 숲 속에 착륙시켰다. 하지만 폭죽 하나가 타고 있었다. 그것에는 아직 불꽃이 남아 있었다.

p. 46-47 잠시 후에... 그것은 폭발했다! “안 돼!” 젊은이가 외쳤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모든 것이 사라졌어. 나는 내 이야기의 성냥들과 다름없구나!” 가방은 타서 재로 변했다. 젊은이의 가방은 더 이상 없었다. 그는 탑에 올라갈 방법이 없었다. 그는 다시는 공수를 볼 수 없었다. 그녀는 결혼식 날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 하지만 그는 오지 않았다. 오늘날까지도 그녀는 상심한 채 기다리고 있다. 그녀는 그녀의 터키 천사를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그는 결코 오지 않을 것이다.

.....

어머니 이야기

[제 1 장] 한밤의 방문

p. 52-53 그 밤은 춥고 축축했다. 눈이 숲을 덮었다. 유일하게 들리는 소리는 작은 오두막집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뿐이었다. 그것은 한 어머니가 우는 소리였다. 그녀의 품에는 작은 아기가 있었다. 그 아기는 매우 아파서 아무런 소리도 내지 못했다. 어머니는 아기를 요람에 넣었다. 그것은 나무로 만들어졌다. 그 요람 안에는 얇고 냄새 나는 담요가 있었다. 그녀는 아기 옆에 앉았다. 불이 있었음에도 둘 다 추웠다. 그녀가 앉자 현관문이 열렸다. 한 남자가 들어왔다.

p. 54-55 그 남자는 매우 높고 말랐다. 그는 모자가 달린 긴 검정색 상의를 입고 있었다. 그 상의는 길고 낡았다. 남자는 매우 친절히 걸었다. 그는 여인과 아기를 향해 걸어왔다. 그녀는 그가 누구인지 몰랐지만 두렵지 않았다. “내 아기를 도와주시겠어요?” 그녀는 물었다. “난 아기 때문에 여기에 왔어.” 남자가 천천히 말했다. “하지만 당신은 이제 잠을 자야 해.” 여인은 매우 졸음이 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그녀는 곧 잠들었다. 그녀가 깨었을 때, 남자와 아기 둘 다 사라지고 없었다. 그녀는 비명을 질렀다. “안 돼! 내 아기!” 그리고 그녀는 문 밖으로 뛰쳐나갔다.

p. 56-57 밖에는 흰 원피스를 입은 작은 소녀가 있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를 봤니?” 여인이 물었다. “그가 내 아기를 데리고 있어.” 소녀는 대답했다. “예, 봤어요. 하지만 그것은 남자가 아니었어요. 죽음의 신이었어요. 그는 아기를 저승에 데리고 가기 위해 왔어요.” “절대 안 돼!” 어머니가 외쳤다. “그들이 어느 쪽으로 갔는지 말해 줘. 내가 그들을 쫓아가서 내 아기를 찾아오겠어.” 작은 소녀가 말했다.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말해 줄게요. 하지만 먼저 아주머니가 저를 위해 할 일이 있어요. 나에게 노래를 해주셔야 해요. 아기에게 불러주었던 그 노래들을 주세요.” 그래서 그 슬픈, 눈물 짓고 있는 여인은 노래를 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밤새도록 노래를 했다.

p. 58-59 작은 소녀는 말했다. “이제 말해 드릴게요. 그들은 북쪽으로 갔어요. 저승은 북쪽에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눈을 헤치고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북쪽으로 달려갔다. 며칠 후에 그녀는 길을 잃었다. 그녀는 길을 묻기 위해서 멈췄다. “죽음의 신이 내 아기를 데리고 갔어요.” 그녀가 말했다. “내가 어디에서 그들을 찾을 수 있는지 누구 아시나요?” 그녀의 다리 근처에서 목소리가 났다. 그 소리는 가시나무 덤불에서 나오고 있었다.

p. 60-61 “내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가시나무 덤불이 말했다. “하지만 당신이 먼저 나를 도와줘야 해요. 나는 눈 속에서 너무 추워요. 나를 꼭 안아서 따뜻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알려 드리죠.” 어머니는 몸을 구부려서 가시나무 덤불을 들었다. 그녀는 그것을 꼭 안았다. 가시들이 그녀의 피부 속 깊이 밀고 들어왔다. 그것들은 그녀가 피를 흘리게 만들었다. 피가 그녀의 몸을 타고 흘러내렸다. “고마워요.” 가시나무 덤불이 말했다. “당신은 모리아산으로 가야 해요. 저승은 모리아산에 있어요.” 어머니는 모리아산 쪽으로 갔다.

p. 62-63 가는 도중에 그녀는 큰 바다를 만났다. “나는 반드시 저 바다를 건너야 해.” 그녀가 말했다. “난 바닷물을 마실 거야. 인간이 바다를 마실 수 없다는 건 알아. 하지만 난 해볼 거야.” 그녀가 외

쳤다. 바다는 그녀를 동정했다. “너는 내 물을 전부 마실 수 없어.” 그것이 말했다. “하지만 너를 도와 주겠어. 넌 아름다운 눈을 가졌구나. 네 눈을 내게 주었으면 좋겠어. 네가 그렇게 하면, 난 내 자신을 열음으로 변하게 할 거야. 그러면, 너는 내 위로 걸어서 모리아산으로 갈 수 있어.” 어머니는 자신의 눈을 뽑았다. 그녀는 그것들을 차가운 회색 빛 바다에 던졌다.

p. 64-65 얼마 후에, 그녀는 언 바다 위를 건너갔다. 그녀의 발은 매우 찢다. 얼마 후에, 그녀는 바다를 다 건넜다. 하지만 그녀는 길을 잃었다. 그리고 그녀는 볼 수도 없었다. “누가 제 아기를 찾게 도와주시겠어요?” 그녀가 외쳤다. 한 할머니가 대답했다. “당신의 머리카락은 매우 검고 아름답구려. 내게 줘요. 내가 아기를 찾게 도와주지. 난 저승의 문을 열 수 있단요.”

[제 2 장] 왕자님

p. 68-69 어머니는 자신의 머리카락을 뽑았다. 그녀는 그것을 할머니에게 주었다. 할머니는 문을 열었다. 안에는 수백만 송이의 꽃들이 있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것들을 볼 수 없었다. 그녀는 눈이 없었다. “꽃 냄새를 맡을 수 있나요?” 할머니가 물었다. “각각의 꽃은 한 명의 인간을 상징하지. 죽음의 신이 한 송이의 꽃을 뽑으면, 그 사람은 죽게 되단요.”

p. 70-71 “죽음의 신은 사악해요.” 어머니가 소리쳤다. “어떻게 작은 아기를 데려갈 수 있죠?” “아니,” 할머니가 말했다. “죽음의 신은 사악하지 않아요. 그것은 삶의 일부지.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찾아와요. 하지만 우리는 그 시간이 언제일지 모른단요. 신만이 언제 어디인지 알지. 하지만 난 당신의 고통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비밀 하나를 말해 주겠어요. 여기에 작은 꽃들이 있지. 죽음의 신이 집에 오면, 이 꽃들을 움켜쥐어, 그에게 아기를 줘야 한다고 말해요. 안 그러면 이 꽃 모두를 뽑아 버릴 거라고 해요. 그럼 그의 계획이 엉망이 될 거요. 그는 아기를 돌려 줄 거요.” 곧 죽음의 신은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어머니를 알아보았다.

p. 74-75 “당신의 눈과 머리카락은 어디 갔지?” 그가 물었다. 그녀는 작은 꽃을 한 움큼 움켜잡았다. “내 아기를 위해 줘버렸어요.” 그녀가 말했다. “이제 내 아기를 돌려줘요.” 그녀는 다그쳤다. “그러지 않으면 내가 이 꽃들을 뽑아 버릴 거예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겠죠.” 죽음의 신은 그녀를 보면서 앉았다. “당신이 왜 여기에 왔는지 알아.” 그가 말했다. “그리고 난 바다에게 당신의 눈을 달라고 부탁했지. 여기 있어. 다시 가져가, 그리고 나서 이야기를 나누자.” 여인은 눈을 다시 받았다. 그녀는 눈을 자신의 머리에 다시 넣었다. 이제 그녀는 그녀 주위를 볼 수 있었다. 그녀는 아름다운 꽃들을 볼 수 있었다. 꽃들은 그녀가 볼 수 있는 데까지 펼쳐져 있었다.

p. 76-77 여인은 작은 꽃들을 놓아 주었다. “하지만 당신은 왜 내 아기를 데리러 왔죠?” 그녀는 외쳤다. “왜 내 아기를? 왜?” 죽음의 신이 말했다. “내가 가는 곳을 내가 선택하진 않아. 내가 데리고 갈 사람을 내가 선택하지도 않아. 그 결정은 신께서 하시는 거야. 난 단지 그의 명령을 따를 뿐이야. 나는 가라고 하는 곳에 가는 거야. 언젠간 내가 당신을 데리러 가겠지. 나는 모든 사람들을 데리러 갈 거야. 당신의 아픔은 엄청나지. 당신의 고통은 깊어. 하지만 난 당신과 거래를 하겠어. 아픔이나 고통이 없는 한 가정을 찾아봐. 딱 한 가정을 말아야. 온 세상에서 고통이 전혀 없었던 단 한 가정. 그러면

내가 당신에게 아기를 돌려 주겠어.”

p. 78-79 여인은 이제 알았다. 죽음의 신은 그녀에게 눈을 돌려 주었다. 이제 그녀는 또렷하게 볼 수 있었다. 그녀는 눈물을 훔치고 저승에서 걸어 나왔다. 그녀가 떠나갈 때 어떤 소리를 들었다. 그것은 한 송이 작은 꽃의 소리였다. 그것은 땅으로부터 나오고 있었다. 그것은 죽음의 신의 손에 의해 뽑혔다.